

광주FC 새 감독 여범규

“빠른축구로 K리그 복귀”

“선수 이탈 최대한 막아야죠”



“하겠다”고 언급했다.

추구하는 스타일은 ‘빠른 축구’다.

여 감독은 “말을 많이 하거나 강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하고자 하는 것은 실천하는 편이고 무엇보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다”며 “선수들에게 내가 하는 스타일, 축구관을 심어주려고 한다. 빠른 패스, 빠른 움직임, 빠른 공격을 해야한다. 스피드를 바탕으로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도 할 수 있는 조직적으로 잘 갖춰진 팀을 꾸리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강등으로 인한 선수진의 이탈이 여 감독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여 감독은 “강등이 됐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탈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실력을 갖춘 선수들은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예산 문제가 있기 있기 때문에 이적료로 예산을 충당해야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2년 동안 같이 고생한 선수들이라 누구보다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최대한 마음을 잘 다독여 지금 선수들과 1부에 도전하고 싶다. 같이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어진 과제는 선수단 분위기 다잡기다.

“선수들의 마음을 잘 추스르는 게 우선이다”고 말한 여 감독은 “선장이 없어지면서 올스톱 상태였다. 10일 신인 드래프트가 끝난 뒤 11일께 선수단을 소집할 예정이다. 3~4일 정도 훈련을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바르셀로나의 골잡이 리오넬 메시가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벤피카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원정경기에서 골키퍼 아르투르와 부딪힌 뒤 괴로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해 최다골 ‘-1’ ... 남은 세경기 2골 넣으면 축구 역사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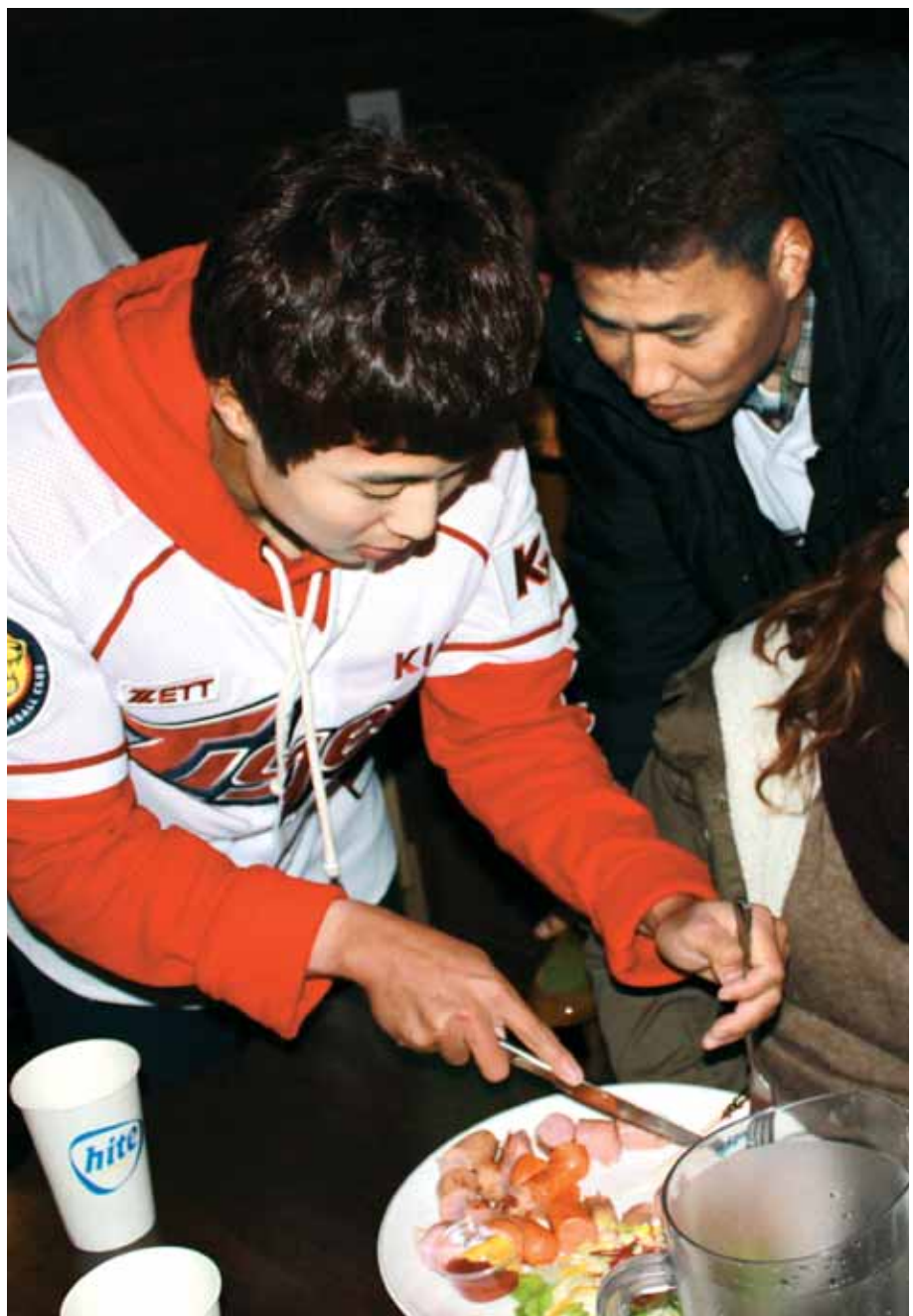
이로진 “단순한 타박상”

메시가 쓰러졌다. 리오넬 메시, 현란한 드리블로 ‘전설’ 마라도나를 제치고 폭발적인 골폭풍으로 ‘황제’ 펠레를 뛰어 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필러의 최다골 기록 뿐. 한 해 최다득점 기록엔 단 두 골이 남았다. 2골만 더 넣으면 축구에 대한 모든 기록, 축구에 대한 모든 역사가 그와 함께 한다. 그런데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그가 쓰러졌다.

리오넬 메시는 6일(이하 한국시각) 새벽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벤피카와의 2012-1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후반 36분 상대 골키퍼를 제치고 슈팅을 시도한 뒤 다리에 통증을 느껴며 그라운드에서 누웠다. 왼쪽 무릎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한 메시는 이후 들것에 실려 나가 병원으로 직행했다. 메시의 부상은 스페인 뿐만 아니라 전세계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마지막 라운드

가 끝나는 날. 디펜딩 챔피언 첼시의 조별리그 탈락 등 어떤 이슈보다 큰 관심거리였다. 그간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과 바르셀로나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도 부상 없이 활약했던 메시였기에 그가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은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메시는 FC 바르셀로나와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로 올해만 84골을 넣었다. 이는 1972년 독일 공격수 게르트 뮐러가 기록한 한 해 최다득점기록(85골)에 한 골이 모자라다.

다행히도 우려와는 달리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바르셀로나 의료진은 메시의 상태에 대해 “단순한 타박상이다. 다음 경기 출전 여부는 곧 결정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도 데포르티보’를 비롯한 스페인 언론들도 메시가 회복 속도에 따라 빠르면 오는 주말 레알 베티스와 프리메라리가 경기에 출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메시가 될 수 있는 경기는 앞으로 세 경기. 프리메라리가에서 10일 레알 베티스, 17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3일 레알 바야돌리드 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무릎부상을 당한 메시가 컨디션을 회복해 2골을 넣고 역사를 새로 쓸지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재권기자 jkyu@kwangju.co.kr



웨이터 윤원주 지난 5일 열린 일일호프에서 ‘웨이터’로 변신한 KIA 내아수 윤원주(왼쪽)가 소시지 안주를 직접 자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김동재 코치 돕기 일일호프 뜨거운 호응

윤석민 클럽 100만원 경매

김동재 코치 돕기 일일호프가 성황리에 끝났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5일 뇌졸중으로 투병중인 김동재 코치를 돕기 위해 광주시 남구 진월동 밀러타입에서 일일호프를 열었다. 함박눈이 쏟아진 가운데에도 많은 팬들이 발길을 하면서 밤 9시까지 예정됐던 행사는 밤 11시까지 연장돼 진행됐다. 4부로 나눠 열린 행사의 백미는 ‘예장품 경매’. 처음으로 경매에 붙여진 서재응의 유니폼이 70만원에 낙찰됐고, 안치홍의 배트가 52만원에 넘겨지는 등 팬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경매가 진행됐다. 일일호프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가장 많은

부름을 받은 ‘웨이터’ 윤석민의 인기는 예장품 경매행사에서도 발휘됐다. 윤석민이 들고 나온 클럽은 100만원에 낙찰되면서 이날 경매의 최고가를 장식했다. 롯데 백화점에서 진행된 서재응, 김진우, 윤석민, 이용규, 김선빈의 사인회와 일일호프 현장에 마련된 기념품 판매 코너에도 팬들이 줄을 이었다. 이날 행사를 마친 주장 김상훈은 “궂은 날씨에도 많은 팬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뜨거운 팬들의 열기로 행사의 의미가 더욱 커진 것 같다”며 “김동재 코치님이 하루 빨리 완쾌되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전해져 분명 쾌유하실 것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거미손’ 이운재 은퇴 기로

전남, 재계약 포기 논의

베테랑 골키퍼 이운재(39·전남 드래곤즈·사진)가 은퇴 기로에 섰다. 프로축구 전남 구단은 이운재와의 재계약을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단 관계자는 “재계약 건으로 이운재와 아직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본인도 이런 상황을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운재는 코치진으로부터도 은퇴를 권유 받았다. 하석주 전남 감독은 “은퇴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이운재에게 최근 얘기했다”며 “이운재에게 가족과 상의해 10일까지 현역생활을 연장할지 결정하라고 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운재가 지난 시즌 양호한 성적을 낸 까닭에 명예롭게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이운재는 현재 선수단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이운재는 1996년부터 수원 삼성에서 뛰다가 2011년 전남에 새로 등지를 틀었다. 전남에서 첫해에 34경기 29실점으로 경기평균 0점대 실점으로 선전했다. 올해도 주전으로 33경기에서 38실점을 기록해 전남의 강등권 탈출에 힘을 보탤다. /연합뉴스

양희은 2012 Dinner Show 2012 송년 디너쇼

2012년 12월 13일(목) 18시 30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프/로/그/램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기념품 증정

티켓가격 ₩165,000원(부가세포함)

예약 및 문의
 신양파크호텔
 062)228-4711~2 062)221-4101~3

특별출연 **송은이**